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WELCOME

함께 모인 목장원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목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WORSHIP

-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 2) 찬양은 예비과정의 아니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목장원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WORD

-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자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 3) 예수님 자랑하기(감사)는 한 주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WORK

- 1)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일설교

제목: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5:1-11절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입니다(누가복음 1:1-4; 사도행전 1:1절). 누가의 직업은 의사이고(골로새서 4:14절), 사도바울의 전도 여행의 동역자이며(디모데후서 4:11; 빌레몬서 1:24절), 헬라인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확장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파되어나갔는지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구성은 사도 베드로 중심으로 유대인 전도(1-12장)와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방인 전도(13-28장)로 나누어집니다. 본문은 차별 없는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창세기 17:10-14절).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로 몸에 새겨진 흔적으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할례는 옛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식으로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이사야 52:1절).

본문 1절에 당시 전통적 유대 관습에 물든 이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2절에 할례 문제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본문 7-9절에 많은 변론이 있던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성령을 주셨다는 경험을 말합니다. 이어서 의장인 야고보가 예언자 아모스 9장의 말을 인용하여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되었다고 말합니다(13-21절).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외적인 할례의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이웃교회' 모든 신자(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할례를 기억하며,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여러분! 진정한 할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 여러분은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양반이 머슴을 섬긴 한국교회”

전북 김제에 있는 ‘ㄱ’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의 초기 역사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이야기가 있다. 불교의 오래된 사찰들이 많고 증산교와 같은 소위 민족종교들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김제에 기독교의 복음이 유입된 것은 1905년이다. 이는 남장로교 선교사 테이트(L. B. Tate, 최의덕)와 용화마을의 양반지주이자 마방(馬房)의 주인이던 조덕삼의 만남이 계기가 되었다. 조덕삼은 마방에 묵고 있던 테이트를 청하여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처소로 내놓았는데, 이것이 금산교회의 시작이었다. 이때부터 조덕삼은 집안 식구뿐 아니라 하인들에게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중에는 마부 이자익(1879-1957)도 있었다.

이후 예수에게 붙들린 조덕삼과 이자익은 힘을 모아 금산교회를 세우는데 진력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인과 머슴이 협력했던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두 사람은 1907년에 함께 금산교회의 영수로 임명되었고, 금산교회는 그해에 독노회 전라대리회의 허락을 얻어 장로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때 교인들과 마을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 영수가 먼저 장로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뜻밖이었다. 마을의 지주였던 조덕삼 영수를 제치고 그의 마부 이자익 영수가 장로로 추천된 것이다. 반상의 신분을 철저히 따지던 시대에 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날 것은 뻔했다.

이에 조덕삼 영수는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교인들은 조덕삼 영수에게 큰 박수를 보내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서적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없고, 그 자체로 함께 어울려 사는 신앙의 공동체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후 조덕삼은 자신의 약속대로 믿음 안에서 이자익을 장로로 섬겼다. 당시는 교역자들이 부족할 때라서 이자익 장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일이 많았다. 그때에도 조덕삼 영수는 앞자리에 앉아 겸손하게 예배하며 이자익 장로의 설교에 집중하였다.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교회에 가서는 반대로 장로와 영수의 관계가 되어 서로를 향한 자신들의 직분을 다하였던 것이다. 교인들과 마을사람들은 특히 조덕삼 장로의 모습에 모두 놀랐다. 소작농이나 머슴은 비천한 사람이었다. 그들을 멸시한다고 내놓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하지만 조덕삼 영수는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맛보았기에 성서의 가르침에 순종하였다.

이후에도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가 평양 장로교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했으며, 1915년에는 금산교회 2대 담임목사로 청빙하기까지 했다. 이후 이자익 목사는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큰 인물이 되었다. 비천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참된 믿음의 후원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생명의 향기가 있는 아름다운 믿음은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마련이다. 조덕삼도 이후 장로가 되었으며 그의 아들 조영호도 장로가 되었다. 그리고 손자 조세형(전, 국회의원)도 금산교회의 장로가 되어 천국의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가고 있다.

THINK

복음 안에서는 양반과 머슴도 한 형제가 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혹 나의 삶 속에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복음 안에서 내 몸처럼 사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복음을 적용해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목장보고서를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요예배 담당안내					
담당	8월 3일	8월 10일	8월 17일	8월 24일	8월 31일
마을특송	샘솟는	섬김	살롬	온유	청장년
대표기도	장정숙 권사	안병자 권사	김은경 권사	한영문 권사	이은자 권사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8월 6일	8월 13일	8월 20일	8월 27일	9월 3일
본당청소	행복한	샘솟는	섬김	살롬+청장년	온유
중식봉사					

주요광고

-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 4층 VIP실로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중식을 김밥으로 대신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 월요목양새벽기도회 / 일시: 매주 월요일 새벽 5시 / 장소: 3층 본당(마을장,목자,교사,임원 필참).
- 목요향기로운예배 / 일시: 8월 25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3층 본당
- 확대사역자회의/ 일시: 8월 28일(주일) 오후 예배 후 / 장소: 3층 본당

■ 파워전도대 토요전도 (2시 30분/ 2층 집합).

사랑 나눔 전도가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금주: 청년옥합 / 다음 주: 로고스)

■ 교우소식 ■

- 치유 중보 기도: 김수차 권사/유수립 권사/김해생 권사/이문형 장로/김진석 집사/한정희 권사/
이향숙사모/유춘자권사/조병양집사/조인상집사/문동준청년/최진수장로/이은경집사/장순희집사/서승석성도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